



역사의 무게

손봉호 (대표주관)

어떤 이란의 미혹에 깊이 빠진 젊은이가 자기를 교주의 강연회에 나를 초청했다. 아이 가 없어서 심히 꾸짖었다.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20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 교주보다 몇백 배 더 총명하고 더 신실한 수많은 학자들과 경건한 지도자들이 그 기간 세월동안 너희들 교주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결의하고, 개정해서 형성해 놓은 결정체(結晶體)야. 어디 무식한 돌팔이가 하나 갑자기 나타나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산에 감히 도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사람들을 속이려 해!”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 있는 종교이므로 역사는 주요하지 않은 것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시간의 흐름이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돌팔이가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계시 자체가 하늘에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역사적 상황을 이용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구약성경 상당부분이 역사 기록이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이다. 불경, 코란을 비롯해서 어느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성경만큼 역사적 기록을 많이 포함한 것은 없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고 모든 종교들 가운데 역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를 중요시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 광야의 시련, 아브라함 등 조상들과의 연약, 이스라엘의 타락 등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 명령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신민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기독교도는 역사를 떠나서 정체성을 논할 수 없다. 물론 정경이 완성된 이후의 역사가 성경이 기록한 역사와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있다고 가르치므로 우리는 역사적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닐지라도 올바르게 이해한 역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된다. 신학은 자연의 계시를 인정한다. 물론 성경의 계시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해한 자연현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역사 자체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지만 성경의 조명을 받은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네덜란드의 조지신학 교수 벵코프(Berkhof)는 5세기경에 형성된 지금 형식의 사도신경에 그 시대의 교회에서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주장들과 사조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성경이 역사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 시대에는 이미 미사가 예배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으며, 도덕적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도덕주의(moralism)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오직 성경, 특히 바울의 가르침이 순수하게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기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의 모든 교파가 다 인정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고백이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 반영할 뿐 시대의 잘못된 생각과 체도를 배제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2세기부터 15세기까지 무려 300년이란 긴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와 공회의 토론을 거쳐 형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정경을 대체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경의 권위 아래 남아 있는 것도 인간적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벨코프는 지적한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진흥협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기독교의 정체성은 권위를 갖게 되고 그에 대한 반복된 도전들을 굳건히 견뎌냈기 때문에 역사의 무게는 더 커졌다. 그 역사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결코 개혁되어서는 안 되는가? 물론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란 표현은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유래했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프랑스 개혁교회가 모토로 사용했다 한다. 개신교회의 생명은 끊임없는 개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수와 개혁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기독교의 개혁은 과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고치는 것이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마치 자연현상도 계사가 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할 때만 권위가 있듯, 역사도 오직 성경에 의하여 올바르게 조명될 때만 진정한 무게를 가질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 모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반영된 것만이 진정한 권위를 가진다. 사도신경도 역사적 산물이고 심지어 전 생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성경의 잣대로 재어보면 하나는 옳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역사는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역사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므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인간의 약점을 알아 대비할 수 있다. 과거를 바로 보아야 미래를 바로 살 수 있다. 독일이 존경을 받고 일본이 비판을 받는 것은 역사를 보는 능력과 태도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